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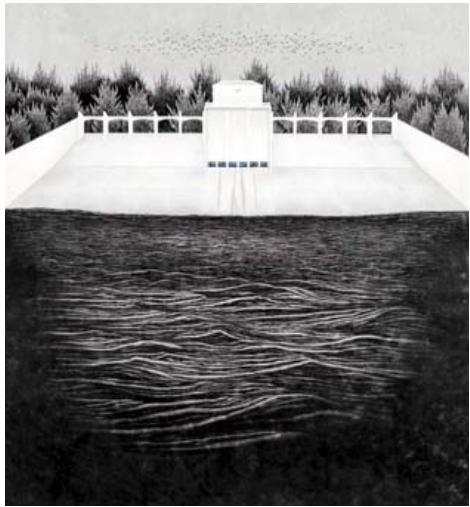
감정의 물결 속 마주한 내면의 이야기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윤준영 '익숙한 듯, 낯선'展...1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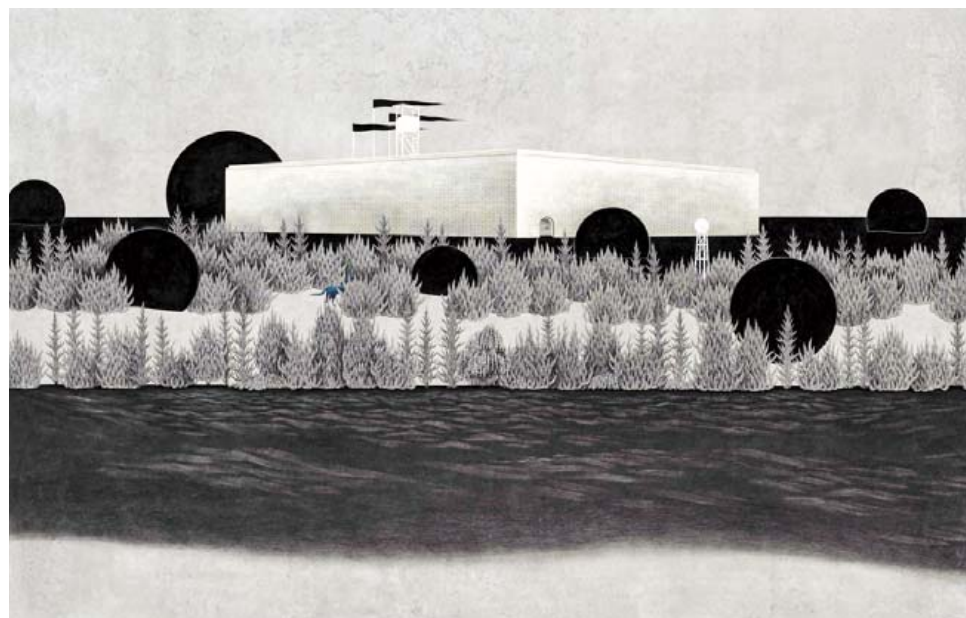
'어딘가에'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 안에는 집과 나무, 달, 무리지어 나는 새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빼곡한 벽돌로 쌓인 건축물이나 끝없이 깊은 구덩이 속의 검은 빛깔의 물에선 웬지 모를 고독한 느낌이 맴돈다.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각각의 그림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하다.



'무저갱'

인간이 부재한 풍경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반추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신세계미술제 오는 16일까지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초대전 윤준영의 '익숙한 듯, 낯선'전을 개최한다. 한국화 특유의 무채색 위주의 화풍에 사색적인 내용을 선보여 온 윤 작가는 내면 속 상상력과 좌절, 공허한 심리 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윤 작가는 2019년 제20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신진작가상을 수상했다. 그의 작업은 미술제 심사평에서 '인간이 부재한 풍경을 통해 인간의 고독과 불안함을 암시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며, 그리 길지 않은 연력에도 하나의 뚜렷한 양식을 일구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보이지 않는 눈과 응집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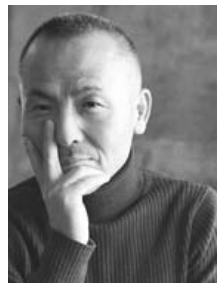
작가는 사회를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을 먹과 콩테로 구성된 무채색의 화폭에 풀어낸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 대한 불안감, 복잡한 사회체계 앞에서의 무력감, 사회적 유대의 상실감 등의 비가시적인 사유를 공간 안에 가시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더 나아가 최

근에는 검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우거진 수풀, 거대한 달과 같은 자연물이 그의 작품에서 돋보인다. 통제할 수 없고 그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위압감은 사회 내에서 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다. 이처럼 작가는 부단히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는 감정과 사유를 작품으로 서술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보이지 않는 눈과 응집된 것', 'believer' 연작 또한 어두운 색으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풍기지만, 그 내면엔 긍정적인 감정들이 담겨 있다. 살아가며 체득되는 경험과 감정들이 우리들의 내면에 축적되어 성숙해지고, 불안함 속에서도 일말의 기대와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주신세계갤러리 측은 "작가가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방법을 통해 본인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선보이는 것처럼,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내면의 감정에 대해 반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준영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개인전 4회와 단체전 19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 쓰시마아트판타지아 프로그램 참여작가로 작업했으며, 남도문화재단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선정작가상, 광주화랑 공모전 입선 등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최명진기자

자연주의적 조형의식

가을의 캐버스상체

내가 탐구해온 자연주의 조형미술의 이해는 오랜 시간동안 심화되어왔다. 30대에서 50대까지 매 시기마다 자연을 대상으로 한 마음교감이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것이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은 생활 속 자연과 인간관계를 예술의 문체와 접목시키는 생태학적 사유과정이다. 그것을 잘 드러낸 작품 중 하나가 부조작업이다. '순수형태-순환'은 모래사장에 있는 생명체의 흔적과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낸 자국을 석고 반죽으로 바로 떠낸 것이고, 그 캐스팅한 것을 몰드로 사용하여 다시 한지로 캐스팅한 것이다. 회화를 전공한 나에게 밀물과 썰물의 교차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6m가 넘는



모래사장 캐스팅 작업은 녹록치가 않았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성공했지만 다시 켈리티 있게 한지 부조로 떠내는 것 또한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낯은 흙과 손등은 갈라지고 찢어져 피 나고 쓰렸다. 거기에 작업비용이 부족해 빚까지 났으니 그저 막막할 뿐이었다. 그때 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버티는 것이었다. 사방에서 눈치를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는 것이다. 중도 포기하면 그 작업은 다시 할 기회가 없지만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것만으로도 시간의 진실 속에 하고자 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다.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살이 나게 한다.



'순수형태-순환'

'자연주의적 조형 의식'의 본질은 인간의 의식과 기술을 통해 '창조'되는 것이지만, 그 창조의 기저에는 다시금 자연에 따라 행하고 인위를 가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 회귀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평소 자연에 무관

심하다. 그러나 죽음에 가까워지면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자연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자연의 순환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자연에 최후의 위안을 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대인동에서 화가강연>

광주 교원 통합예술교육연수 '아이 엠 쌤'

광주문화재단, 12일까지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오는 12일까지 광주학생예술누터에서 지역 내 초·중등교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원 대상 문화예술교육워크숍 '아이 엠 쌤'을 진행한다. 이번 2022 교원대상 문화예술교육워크숍 '아이 엠 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교육연구원, 광주학생예술누터가 공동주관해 진행된다. 교사대상 워크숍 '아이 엠 쌤'은 교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통합예술교육 역량과 기획력을 강화해 광주문화예술교육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부터 4년째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은 광주중앙초 내 체험 중심 예술교육 공간인 광주학생예술누터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8일 첫 프로그램으로 '발견을 지속하는 예술 미리보기'가 진행됐다. 태이음

직업교육연구소 신희흥 대표와 함께 무용 기반의 문화예술 체험과 워크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의 창의적인 공간들을 둘러보고 김천용 교육기획자의 인문학 기반 강의를 펼쳐졌다. 9-10일은 '예술 다양성 체험'을 주제로 광주학생예술누터 강사들과 함께 팝아트, 미디어아트, 목공, 뮤지컬, 음악극 등 11가지 분야의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해본다. 11일은 교육연극모임 '소나키위' 회장인 박병주 김천 동부초 교사가 '남만을 꿈꾸는 교육연극 수업 이야기'를,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공동대표인 한승모 흥천 남산초 교사가 '목소리로 만나는 음악'을 주제로 교육 현장의 통합문화예술교육 활동 경험을 공유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A.C.클리나멘 김현주·조광희 작가와 함께 '예술을 경험하는 예술의 행동'을 주제로 예술가들의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고 나만의 프로그램을 구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최명진기자

남자들은 다 아는 바로 그 제품

New 씨알-렉스

남자한테~ 표현하기가~
어제와 다른 오늘의 활력을 느껴보세요!
나를 위한 좋은 습관, 씨알-렉스

드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역시! 씨알-렉스!!
효능·효과는 묻지마세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

2022년 3월 ~ 2022년 5월 30일

2개월분(60포) : 198,000원 **148,000원**

(주) 보람약품

주 문: yuhanbio@naver.com

네이버 카페 씨알렉스 검색

택배비: 농협 351-1107-2991 -93 (예금주:유나은)

시·군 대리점모집

광주 본사: 010-4624-5046

전북지사: 010-7704-2490